원효의 수행사상

: 『성유식론』의 唯識四智와 『기신론소』의 始覺四位 중심으로

청강 스님(김창언)*

I. 머리말
II. 성소작지와 불각
III. 묘관찰지와 상사각
IV. 평등성지와 수분각
V. 대원경지와 구경각
VI. 나가는 말

한글요약

본 연구는 『대승기신론』에서 언급된 시각(始覺)의 차별을 원효가 『기신론소』에서 4相과 4位를 언급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불각에서 구경각에 이르는 과정을 유식의 4智와 비교 연구하였고 『기신론소』에 나타난 원효의 수행사상을 정리하였다.

『기신론소』에 4位를 네 가지 뜻(깨닫는 사람, 깨달음의 대상, 깨달음의 이익, 깨달음의 범위)으로 정리하였고 유식의 4智 또한 이에 준하여 정리하였다. 이 두 계위를 비교하여 보면 깨닫는 사람 즉 수행계위와 식(識)의 다스림에 대해는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깨달음의 대상과 깨달음의 이익 등에서는 내용상으로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혼용되어 있다.

*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 교무국장

원효의 『기신론소』의 4相과 4位에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기신론』사상이 반야사상(般若思想)과 유식사상(唯識思想), 그리고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 원효는 화엄사상과 정토사상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수행자들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효는 다양한 경론을 섭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수행사상을 정립하면서 모두가 일심이라고 하는 설명과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일심을 보게 하도록 제시하였다. 둘째, 원돈지관과 점차지관 수행법을 다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相의 깊고 얕음에 차별이 있으나 깨달음에는 사상이 같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미 깨달아 있다는 불성사상에 입각한 원돈지관의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심식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6식의 기본적인 식을 넘어 7식과 8식의 상태에 들어가 세밀히 관찰하여 마음을 밝히자는 점차지관의 수행법이 있다.

주제어 ● 『기신론소』, 원효, 4相, 4位, 4智

I. 머리말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사업은 명상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한국명상의 문화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학연구소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명상의 근원을 고찰해 보고자 하고 있다.

논자는 한국전통의 참선 내지는 명상의 근원을 한국 고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한국불교사의 최대의 사상가이면서 또한 모든 불

교의 종파를 회통한 원효의 수행사상을 연구해 보았다. 원효는 최고의 학승이자 선승이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서민에게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여 불국토를 실현하려 노력하였다.

원효는 86부 180여권의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현존하는 저술을 보면 유가론, 섭대승론, 화엄경, 지도론 등 22종의 경론을 인용하였다. 그중에서 유가론을 116회, 섭대승론을 53회[1] 인용한 것으로 보아 스님의 집필과 수행에 유식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효는『대승기신론』에서 언급된 시각(始覺)의 차별을『기신론소』에서 4相과 4位를 언급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불각에서 구경각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유식의 4智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유식의 4智의 수행계위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식의 4智에서는 구체적인 수행법이 없는 반면 원효는『기신론소』에서 4位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生·住·異·滅의 각 단계에서 번뇌를 끊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원효가 유식의 전식득지(轉識得智)의 사상을 자신의 수행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만의 독특한 수행법의 제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자료로 오형근[2], 김도공[3] 김성철[4] 등의 연구를 토대로 원효가『기신론소』에서 깨달음의 계위를 4相과 4位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유식의 4智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불각에서 구경각까지 각 계위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살

---

1) 오형근(1980), 81-84.

2) 오형근(1980), 77-111: 원효는 다양한 경론을 체득하였는데 그중에서 유식사상을 가장 많이 인용된 것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기신론소』의 始覺四位를 설명하는 데 유식의 전식득지 사상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

3) 김도공(2002), 23-36: 원효의『기신론소』를 주석할 때 인용된『유가사지론』의 지관사상과 수행계위에 대해 연구되었다.

4) 김성철(2015), 5: 원효는 심식설을 주장함에 있어『현양성교론』이나『대승아비달마잡집론』등의 현장계의 유식학파의 심식설과 비슷함을 보여준다.

펴본다. 유식과『기신론』을 포함한 대승불교사상을 실천수행하고 있는 혜거(慧炬, 1944~)대종사의 지도편달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원효 특유의 수행사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전통의 수행지침서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성소작지와 불각

유식학파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자량위(資糧位)를 시작으로, 가행위(加行位), 견도위(見道位), 수도위(修道位), 구경위(究竟位)의 5위의 수행과정이다. 이러한 각 계위를 거쳐 중생의 어리석은 무명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면서 구경위의 부처의 계위에 이르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수행과정에서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얻게 되는 것이 전식득지이다.

『성유식론』에서 전의(轉依)의 의미에는 첫째, 전의를 이루는 도[能轉道], 둘째, 전의되는 것[所轉依], 셋째, 전의해서 버려지는 것[所轉捨], 넷째, 전의해서 얻어지는 것[所轉得]이 있다. 전의해서 얻어지는 것 중에 제1은 현현해서 얻어지는 것[所顯得]과 제2는 생겨나서 얻어지는 것[所生得]이 있다. 생겨나서 얻어지는 것이란 수도의 힘으로 소지장을 끊기 때문에 보리를 얻는다고 하며 이는 4가지 지혜와 상응하는 심품이다.[5] 여기서 4가지 지혜는 제8식이 무명을 모두 제거하여 나타나는 대원경지, 인간의 자의식(自意識)인 제7식이 변화하여 얻는 평등성지, 제6식인 의식(意識)이 변화하여 얻는 묘관찰지, 그리고 전오식(前五識)이 변화여 이루어지는 성소작지를 말한다. 이러한 四智는 제8식, 제7식, 제6식, 제5식의 심품을

5)『成唯識論』(T31, 54c-56a).

전환하여 순서로 증한다.[6]

『대승기신론소』[7] 에서 서술되는 시각사위란 '시각(始覺)의 수행과정이 사위(四位)이다'. 사위는 ① 범부각(凡夫覺) 혹은 불각(不覺), ② 상사각(相似覺), ③ 수분각(隨分覺), ④ 구경각(究竟覺)이다. 각 수행의 과정에 보살의 52계위가 배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단계에서 번뇌를 끊는 과정을 生·住·異·滅 4相에 배대하였다. 원효는『기신론소』에서 4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중에서 生相을 아뢰야식에, 住相을 7식에, 異相을 6식에 배대하고 있으며 원효는 이어 앞에 언급한 4相을 기준으로 하여 四位로『기신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8]

이처럼 유식의 4智와『기신론소』에서 언급되는 4相과 4位는 수행의 계위와 관련하여 많은 관련성이 내포되어 있다. 지금부터 유식과『기신론소』에 언급된 수행계위를 단계적으로 비교해 나가면서 원효의 수행사상을 고찰해 본다.

1. 유식의 성소작지(成所作智)

『성유식론』에 성소작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제4는 성소작지(成所作智)에 상응하는 심품이다. 이 심품은 많은 유정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 널리 시방에서 갖가지 변화의 세 가지 업을 나타

6)『成唯識論』(T31, 56b), "此轉有漏八七六五識相應品, 如次而得."

7)『대승기신론소』는 인도의 마명보살이 저술하고, 진제삼장이 번역한『대승기신론』을 신라의 원효대사가 주석한 것이다.『해동소』라고도 한다. 현수(賢首)의『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 혜원(慧遠)의『대승의장(大乘義章)』과 함께 3대 소(疏)라 일컫는 이 책은 3문(門)으로 나누어 해석한다. ① 종체(宗體)를 밝히고, ② 제명(題名)을 해석하고, ③ 본문에 대한 구절을 풀이하고 있다. 해석이 간명하고 조직적이며 종합적이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에서도『기신론』연구의 기본문헌으로 삼았다.

8)『起信論疏』(T44, 209c-210b).

> 내 보여서 본원력의 해야 할 일들을 성취한다.[9]
>
> 성소작지에 상응하는 심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보살의 수도위 중에서 후득지(後得智)에 이끌림으로써 역시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성불할 때 비로소 처음으로 일어나게 된다.[10]

성소작지는 전5식을 전환하여 얻는 무루의 지혜이다. 5식의 감각작용의 상태가 전환되어 3업으로 여러 변화를 보이는 지혜이다. 호법은 성소작지는 작의(作意)심소에 따라 오직 현상계의 세속만을 반연하며, 무위법(無爲法)을 반연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후득지에만 포함된다고 하였다.[11] 또한 성소작지는 유정의 마음 작용의 차별을 결택하며 삼세 등의 여러 대상을 받아들인다고 한다.[12] 위에서 성소작지가 보살의 수도위 중에서 후득지에 이끌려 처음 일어난다는 견해와 성불할 때 비로소 처음 일어난다는 견해가 있다고 하였다. 전자의 경우 후득지는 견도에서 일어나는 지혜인데 가행위 다음에 진여를 체득하는 지혜이므로 통달위라고 하고 처음 도리를 비추기 때문에 견도라고 한다.[13] 이 견도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이전의 진견도에서는 유식의 성품을 증득하고, 이후의 상견도에서는 유식의 양상을 깨닫는다. 두 가지 중에서 앞에 있는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송에서 그것에 비중을 두어 말한다. 이전의 진견도를 근본지(根本智)에 포함시키고 이후의 상견도를 후득지(後得智)에 포함시킨다.[14]

---

9) 『成唯識論』(T31, 56a), "四成所作智相應心品, 謂此心品為欲利樂諸有情故, 普於十方示現種種變化三業, 成本願力所應作事."

10) 『成唯識論』(T31, 56b), "成所作智相應心品, 有義菩薩修道位中後得引故亦得初起有. 義成, 佛方得初起."

11) 『成唯識論』(T31, 56c), "隨作意生, 緣事相境起化業故, 後得智攝."

12) 『成唯識論』(T31, 56c), "決擇有情心行差別, 領受去來現在等義."

13) 『成唯識論』(T31, 50a),"加行無間此智生時, 體會真如名通達位, 初照理故亦名見道."

14) 『成唯識論』(T31, 50b) "前真見道證唯識性, 後相見道證唯識相, 二中初勝故頌

논자는 유식의 4智를 연구할 때 의문점은 이 전식득지를 부처의 지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수행계위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위에서 두 가지 견해인, 후득지와 성불의 견해에서 논자는 후득지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그렇다면 후득지는 유식의 수행위에서 통달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수행계위는 완전한 깨달음인 구경위가 아니므로 묘관찰지와 평등성지의 수행이 필요하다.

『유식30론송』의 제15송에 사량분별하는 전5식은 모두 제8근본식을 의지하여 반연을 따라 작용하고 이는 마치 파도가 물을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15] 예를 들면 무엇을 본다고 할 때 눈 그 자체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8식이 주체가 되어 눈을 통해서 본다는 의미이다.

2. 『기신론소』의 불각(不覺)

『기신론』에는 범부가 앞서 생각에 악이 일어난 것을 알았기에 뒤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치게 하여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16] 원효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기신론소』에서 멸상(滅相)에 7가지 악업[17]이 있다고 하였고 바깥 경계에 끄달려서 이러한 멸상을 일으킨다고 하였다.[18] 불각에서는 전5식이라는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7지 악업을 끊는 것은 전5식을 다스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효는 7가지 악업이 10신위에 들

偏說, 前真見道根本智攝, 後相見道後得智攝."

15) 『唯識三十論頌』(T31, 60c), "依止根本識, 五識隨緣現, 或俱或不俱, 如濤波依水."

16) 『大乘起信論』(T32, 576b), "如凡夫人覺知前念起惡故, 能止後念令其不起, 雖復名覺, 即是不覺故."

17) 7가지 악업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악구, 양설의 악업이다.

18) 『起信論疏』(T44, 209c), "由此發起七種滅相。所謂身口七支惡業。如是惡業。能滅異心令墮惡趣, 故名滅相."

어가면 멸상을 그칠 수 있다고 한다.

> 첫 번째 지위[位] 중에 '범부'라고 한 것은 '능각인'이니, 지위가 10신(信)에 해당한다. '앞의 생각에서 악이 일어남을 알았다'는 것은 소각상을 나타냄이니, 미처 10신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곱 가지 악업이 같이 일어나다가 10신의 지위에 들어가게 되면, 일곱 가지 악업이 진실로 열반의 성취에 장애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의 생각에서 악이 일어남을 알아차린다'라고 말한 것이며, 이는 멸상(滅相)을 깨달은 이치를 밝힌 것이다. '뒤의 생각을 그쳐서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깨달음의 이익'이니, 앞에서는 '불각(不覺)'을 말미암아 일곱 가지 악한 생각[惡念]을 일으켰다가 이 경지에서는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멸상(滅相)을 그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각(覺)이라 이름을 붙이기는 하지만 바로 불각(不覺)이다'라고 한 것은 깨달음의 수준[覺分齊]을 밝힌 것이니, 멸상이 실로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선(不善)한 것임을 알기는 하지만, 아직은 멸상(滅相)이 꿈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19]

원효는 『기신론소』에서 始覺 4位에 각각 4가지 뜻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깨닫는 사람, 깨달음의 대상, 깨달음의 이익, 깨달음의 범위를 설하고 있다. 10신의 지위에 들면 오식에 의해 판단되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수행의 일반적인 과정이 信·解·行·證인데 첫째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불각에서 믿음은 중요하다. 『기신론소』에서는 십신위에 해당되는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막연한 믿음이 아닌 대승에서 말하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아는 신심(信心)에서 어떻게 소원해야 할

19) 『起信論疏』(T44, 209c-210a), "初位中言如凡夫人者。是能覺人位在十信也。覺知前念起惡者。顯所覺相。未入十信之前。具起七支惡業。今入信位。能知七支實為不善。故言覺知前念起惡。此明覺於滅相義也。能止後念令不起者。是覺利益。前由不覺。起七支惡念。今既覺故。能止滅相也。言雖復名覺即是不覺者。明覺分齊。雖知滅相實是不善。而猶未覺滅相是夢也."

것인지를 아는 원심(願心)에 이르기까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원효는『기신론』에서 전오식을 다스리는 불각과 관련하여『무량수경종요』에서 어떤 사람이 경전에서 "십념으로 염불하면 저 국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지혜(不思議智)를 설명하면서 스스로의 얕은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20] 이는 원효가 성소작지와 불각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기신론소』에서 7가지 악업을 다스리는 것이나 십념으로 염불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같은 경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행자가 불각을 이루려면 화엄경의 십신에 대한 철저한 앎이나 정토에서 강조하는 아미타불을 십념만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100% 갖는 것이 중요하다.

원효는『기신론소』의 4位에서 유식의 4智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4相과 4位를 설명하는 가운데 유식의 4智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유식30론송』에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경계에 대해 오관이 작용할 때 모두가 제8식 즉 근본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일어나는 6식과 7식 등의 전식득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눈을 통해 좋은 물건을 보았을 때 탐욕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근본 마음에는 나라는 것, 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다음에는 더 이상 탐욕이 일어나지 않기를 참회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구체적인 열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다겁생에 번뇌 망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조차 못 하다가 이제 이러한 수행을 통하여 오관을 통해 벌어지는 상념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

---

20)『兩卷無量壽經宗要』(T37, 130b-c) "一者疑成作事智所作之事, 謂聞經說十念念佛得生彼國, 由不了故, 生疑而言: 如佛經說善惡業道, 罪福無朽, 重者先牽, 理數無差。如何一生無惡不造, 但以十念能滅諸罪, 便得生彼, 入正定聚, 永離三途, 畢竟不退耶? 又無始來起諸煩惱, 繫屬三界而相纏縛。如何不斷二輪煩惱, 直以十念出三界外耶? 為治如是邪思惟疑, 是故說名不思議智."

성소작지와 불각을 비교하여 볼 때 두 가지 계위가 대원경지나 구경각에 이르기 위한 점수(漸修) 내지 시각의 처음단계이다. 성소작지에서 전5식을 전환하여 얻는 무루지혜와 불각에서 전5식에서 7지악업을 끊음이 공통점이라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서 뚜렷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다.

Ⅲ. 묘관찰지와 상사각

1. 유식의 묘관찰지(妙觀察智)

묘관찰지는 유루의 제6식을 전환하여 얻는 무루의 지혜이다. '묘(妙)'는 불가사의한 힘의 자재를 말하고, '관찰'은 모든 법을 관찰하여 정통하는 것이다. 의식(意識)에서 개별적이고 개념적인 인식상태가 변화되어, 모든 사물의 자체상[自相]과 보편적인 특질[共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그리하여 중생의 근기를 알아서 불가사의한 힘을 나타내고, 훌륭하게 법을 설하여 모든 의심을 끊게 한다.[21]

> 제3은 묘관찰지(妙觀察智)에 상응하는 심품이다. 이 심품은 모든 법의 자체상[自相]과 보편적인 특질[共相]을 관찰하는 데 걸림이 없이 전전한다. 수많은 다라니와 선정의 방법 및 생겨난 공덕의 보배를 거두어 관찰한다. 대중의 집회에서 능히 한량없는 갖가지 작용을 나타내는 데 모두 자재하다. 큰 법의 비를 내리고, 모든 의심을 끊으며, 많은 유정들로 하여금 모두 이익과 안락함을 얻게 한다.[22]

---

21) 『成唯識論』(T31, 56a), "謂此心品善觀諸法自相共相無礙而轉, 攝觀無量總持定門及所發生功德珍寶, 於大眾會能現無邊作用差別皆得自在, 雨大法雨斷一切疑."

22) 『成唯識論』(T31, 56a), "三妙觀察智相應心品, 謂此心品善觀諸法自相共相無

여기서 자체상[自相]이란 사물 그 자체로서 공통적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共相이란 보편적 특질을 말하는 것으로 사물의 공통된 특징을 말한다. 수많은 다라니와 선정의 방법은 예를 들면 육바라밀이나 십력 등을 말한다. 『성유식론』에서는 묘관찰지에 대해 아공의 경우 2승의 견도위, 즉 대승의 돈오 보살도 견도에서 처음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初地를 말한다. 또는 승해행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십신·십주·십행·십회향에서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23].

2. 『기신론소』의 상사각(相似覺)

『기신론』에 "이승의 관지(觀智)와 초발의보살 정도의 사람 등은 이상(異相)을 깨달아 이상(異相)이 없으니, 이는 추분별집착상을 버렸기에 상사각이라 이름한다."[24]고 하였다. 이에 대해 원효는 두 번째 계위인 상사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 두 번째 지위 중에 '이승(二乘)의 관지(觀智)와 구경각을 이루려는 마음을 막 일으킨 보살[初發意菩薩] 등'이라 한 것은 10해(解) 이상의 3현(賢) 보살을 가리킨다. 10해의 초심(初心)을 발심주(發心住)라고 부르는데, 이 발심주에 해당하는 인격을 제시하여 동시에 후위(後位)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구경각을 이루려는 마음을 막 일으킨 보살 등'이라 말한 것이니, 이는 '깨닫는 사람[能覺人]'을 밝힌 것이다. '생각의 달라짐[念異]을 깨달아'라는 것은 '깨달음의 내용[所覺相]'을 밝힌 것이다.[25]

礙而轉, 攝觀無量總持定門及所發生功德珍寶, 於大眾會能現無邊作用差別皆得自在, 雨大法雨斷一切疑, 令諸有情皆獲利樂."

23) 『成唯識論』(T31, 56b), "生空觀品二乘見位亦得初起, 此後展轉至無學位或至菩薩解行地終或至上位."

24) 『大乘起信論』(T32, 576b), "如二乘觀智, 初發意菩薩等, 覺於念異, 念無異相, 以捨麁分別執著相故, 名相似覺."

25) 『起信論疏』(T44, 210a), "第二位中言如二乘觀智初發意菩薩等者。十解以上三

二乘의 觀智라 함은 성문과 연각을 말하며 이 성자들은 마음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발의보살이란 십주, 십행, 십회향 보살을 이름한다. 『法性偈』에 "처음 발심한 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다."[26]라고 하였다. 이는 십신이 충만해지면 初發心住, 즉 初住가 처음 깨달음을 이룬 때이다. 이는 다시 말해 대승에서 初住가 되면 바로 正覺과 상즉의 관계가 되어 어떤 공덕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이다.

초발심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화엄경』 십주품에는 세존의 형상의 단정함을 보는 것, 위신력과 신통을 보는 것, 수기하는 것을 보는 것, 중생들의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여래의 불법을 듣고 보리심을 내는 것 등에서 초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27]. 이는 삼보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발심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법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어야 하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수행하다 보면 초발심이 된다는 것이다.

『기신론소』에서 원효는 삼승인이 무아을 알아 생각의 달라짐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異相〔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견(見)〕경계로부터 벗어나 점차 지혜와 상응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28].

賢菩薩。十解初心。名發心住。擧此初人。兼取後位。故言初發意菩薩等。是明能覺人也."

26) 『義相法師法性偈』(B32, p.823a). "初發心時便正覺."

27) 『大方廣佛華嚴經』(T10, 84a-b), "佛子！云何為菩薩發心住？此菩薩見佛世尊形貌端嚴, 色相圓滿, 人所樂見, 難可值遇, 有大威力; 或見神足; 或聞記別; 或聽教誡; 或見眾生受諸劇苦; 或聞如來廣大佛法, 發菩提心, 求一切智。此菩薩緣十種難得法而發於心。何者為十？所謂：是處非處智、善惡業報智、諸根勝劣智、種種解差別智、種種界差別智、一切至處道智、諸禪解脫三昧智、宿命無礙智、天眼無礙智、三世漏普盡智。是為十。佛子！此菩薩應勸學十法。何者為十？所謂: 勤供養佛、樂住生死、主導世間令除惡業、以勝妙法常行教誨、歎無上法、學佛功德、生諸佛前恒蒙攝受、方便演說寂靜三昧、讚歎遠離生死輪迴、為苦眾生作歸依處。何以故？欲令菩薩於佛法中心轉增廣; 有所聞法, 即自開解, 不由他教故."

28) 『起信論疏』(T44, 210a), "此三乘人了知無我。以之故言覺於念異。欲明所相心體無明所眠。夢於異相。起諸煩惱。而今與智慧相應。從異相夢而得微覺也."

앞에 여섯 가지 번뇌는 生起識(제6식)의 자리에 있다고 하였다. 원효는 묘관찰지와 관련해 『무량수경종요』에 일체법은 꿈과 같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아 말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칭량할 수 없으므로 '칭량할 수 없는 지혜(不可稱智)'라고 하였다.[29] 이는 중생들은 자신들의 견해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혜거 대종사는 성소작지와 불각의 계위에서는 전오식을 다스리는 수행이라면 묘관찰지와 상사각의 계위에서는 전오식을 넘어 6식의 경계를 다스리는 수행이라 하였다. 선수행을 하는데 상사각의 계위에서는 "생각의 다름을 깨달음(念異)"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의식을 바로 하는 일념[30]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31] 예를 들면 보고, 듣고, 배운 것 등을 곡해하지 않고 일념상태가 되어 바른 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념의 의식수행이 되었을 때 여섯 개의 번뇌를 차례로 다스려 갈 수 있다고 하였다. 일념의 수행을 하다 보면 6가지 異相 중에서 見은 惡見[32] 또는 見惑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치로서 번뇌를 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있다는 것, 사후세계가 있다거나 없다는 것, 잘못된 생각, 자기가 옳다는 생각, 잘못된 계율에 집착하는 것은 이치로써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의 다섯 번뇌를 五鈍使라 하여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6식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잘 관찰하면서 묘관찰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33]

---

29) 『兩卷無量壽經宗要』(T37, 130b), "不可稱智者, 是妙觀察智, 此智觀察不可稱境, 謂一切法皆如幻夢, 非有非無.離言絕慮, 非逐言者所能稱量, 是故名為不可稱智."

30) 여기서 일념이란 오로지 현재에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구경각의 일념상응과는 차이가 있음.

31) 김창언, 「유식의 四智와 『기신론소』의 始覺四位 비교에 대해」, 서울, 2023. 02. 15.

32) 신견(身見), 변견(邊見), 사견(邪見), 견취견(見取見), 계금취견(戒禁取見)의 다섯 가지.

33) 김창언, 「유식의 四智와 『기신론소』의 始覺四位 비교에 대해」, 서울, 2023.2.15.

Ⅳ. 평등성지와 수분각

1. 유식의 평등성지(平等性智)

『성유식론』에서 평등성지에 상응하는 심품은 보살의 견도 초기에서 처음이 일어나며 이후 10지에서 일어난다.[34] 평등성지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설한다.

> 제2는 평등성지(平等性智)에 상응하는 심품이다. 이 심품은 일체법과 자타의 유정이 모두 다 평등하다고 관찰하고 대자비 등과 항상 함께 상응한다. 모든 유정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수용신과 수용토의 모습의 차이를 나타내 보인다. 묘관찰지의 불공(不共)의 의지처이고, 무주처열반이 건립한 것이다. 미래세가 다하도록 한 부류[一味]로 상속한다.[35]

평등성지는 말나식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이 소멸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며 대자비심으로 중생제도를 한다. 또한 염오의 제7식이 장식을 인식대상으로 하는데 제7말나식은 유부무기에 속하며 생하는 곳에 따라 얽매이며 아라한(阿羅漢)과 멸진정(滅盡定)에 든 자와 출세도(出世道)를 성취한 자에게서 없어진다.[36] 출세도에서 아공 법공의 이공관을 닦아서 분별집착을 여의어 평등성지를 이룬다.

평등성지는 통달위에서 일부분, 불과에 이르러 완전히 증득하는데 통

34) 『成唯識論』(T31, 56b), "平等性智相應心品, 菩薩見道初現前位, 違二執故方得初起。後十地中執未斷故, 有漏等位或有間斷."

35) 『成唯識論』 (T31, 56a), "二平等性智相應心品, 謂此心品觀一切法自他有情悉皆平等, 大慈悲等恒共相應, 隨諸有情所樂示現受用身土影像差別, 妙觀察智不共所依, 無住涅槃之所建立, 一味相續窮未來際."

36) 『唯識三十論頌』(T31, 60b), "有覆無記攝, 隨所生所繫, 阿羅漢滅定, 出世道無有."

달위에서 초지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불지경』에서는 10가지 평등한 성품을 깨달아 얻는다. 그리고 타인의 뛰어난 지혜에 따라서 한량없는 부처님을 나타내 보신다고 하였는데[37] 여기서 타인이란 10지 보살을 이름한다. 종합하여 보면 평등성지는 초지에서 10지보살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기신론소』의 수분각(隨分覺)

『기신론』에 법신보살 등은 주상(住相)을 깨달아 분별추념상을 여의었기 때문에 수분각이라고 하였다.[38] 원효는 『기신론소』에서 수분각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하였다.

> 세 번째 지위 중에 '법신 보살 등'이라 한 것은 초지(初地) 이상 10지(地) 보살을 가리키는데, 이는 깨닫는 사람[能覺人]이다. '망념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번뇌의 특징[住相]을 자각하였다'는 말은, 주상(住相) 중에서는 비록 '마음 밖에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人)·법(法)에 집착하여 안으로 반연하여 머무나, 법신 보살은 2공(空: 我空과 法空)을 통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소상(所相)의 심체가 이미 이상(異相)을 깨닫기는 했지만 여전히 주상(住相)이라는 꿈에 잠들어 있다가, 이제 무분별지(無分別智)와 상응하여 주상이라는 꿈에서 깨어남을 밝히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이 경지의 '깨달음의 내용[所覺相]'이다. '의식 속에서 주상(住相)을 없애버렸다.'는 말은 아치(我癡)·아견(我見)·아애(我愛)·아만(我慢)의 네 가지 주상이 없어져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니, 이는 깨달음의 이익[覺利益]이다.[39]

---

37) 『成唯識論』(T31, 56c), "緣一切法平等性故。有義, 遍緣真俗為境, 『佛地經』說平等性智證得十種平等性故."

38) 『大乘起信論』(T32, 576b), "如法身菩薩等, 覺於念住, 念無住相, 以離分別麁念相故, 名隨分覺."

39) 『起信論疏』(T44, 210a), "第三位中法身菩薩等者。初地以上十地菩薩。是能覺人也。覺於念住者。住相之中。雖不能計心外有塵。而執人法內緣而住。法身菩薩

유식에서 초지에서 10지까지의 경지를 평등성지라고 하고 있는데 『기신론소』에서도 원효는 수분각의 경지를 초지 이상 10지까지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아공과 법공을 깨달아 住相을 멸한다고 하였다. 원효는 4相의 번뇌 중에서 주상의 번뇌는 무명의 세 가지 심리적 작용인 생상(生相), 즉 업상(業相), 전상(轉相), 현상(現相)과 화합하여 아(我)와 아소(我所)가 있다고 집착하여 4종의 주상을 일으키게 한다고 하였다.[40] 그리하여 아치(我癡)·아견(我見)·아애(我愛)·아만(我慢)으로 모두가 나에 대한 집착이 공통적인 것을 보아 7식을 인식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원효는 또한 『무량수경종요』에서 왕생극락함에 있어서 내 아님이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지혜의 힘으로 유정을 다 무상보리에 이르게 됨을 '대승의 넓은 지혜(大乘廣智)'라고 설명하고 있다.[41] 이는 평등성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부처님의 대승의 넓은 지혜를 믿음이 바로 평등성지의 지혜를 얻는 것과 같다.

이 계위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공과 법공을 깨달아야 한다. 아공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있다는 견해, 나의 생각이 맞는다는 잘못된 견해를 알아차림 하면서 자신의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공을 깨닫기 위해서는 법집을 일으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함을 알아차리고 제법의 실상을 관찰하여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공사상을 잘 설명한 것이 『금강경』에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應無所住 而生

通達二空。欲明所相心體前覺異相。而猶眠於住相之夢。今與無分別智相應。從住相夢而得覺悟。故言覺於念住。是所覺相也。念無住相者。四種住相滅而不起。是覺利益也."

40) 『起信論疏』(T44, 209b), "住相四者。由此無明與生和合。迷所生心無我我所。故能生起四種住相."

41) 『兩卷無量壽經宗要』(T37, 130b), "大乘廣智者, 是平等性智, 此智廣度, 不向小乘, 謂遊無我故無不我, 無不我故無不等攝。以此同體智力, 普載無邊有情, 皆令同至無上菩提, 是故名為大乘廣智."

其心)'는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보시를 한다 해도 내가 보시 했다는 생각을 놓아버리고 보시 받은 상대방도 실제로 공하다고 보면서 함이 없이 보시를 하는 것이 아공과 법공을 깨달아 가는 과정이다.

V. 대원경지와 구경각

1. 유식의 대원경지(大圓鏡智)

유식에서 4가지 지혜 중에서 가장 높은 지혜를 대원경지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 무엇이 네 가지 지혜와 상응하는 심품인가? 제1은 대원경지(大圓鏡智)에 상응하는 심품이다. 이 심품은 모든 분별을 떠나고, 인식대상도 인식작용도 미세하여 알기 어렵다. 모든 대상에 대해서 현전하고[不忘]미혹함이 없으며, 체성(자체분)도 체상도 청정하고, 모든 잡염을 버린다. 순수하고 청정하며 원만함의 덕(德)이 있고, 현행과 종자의 의지처이다. 신체、국토、지혜의 영상을 능히 현현하고 생겨나게 하며, 미래세가 다하도록 중단이 없고 끊어짐이 없다. 마치 크고 원만한 거울에 많은 사물의 영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42]

대원경지는 유루의 야뢰야식을 전환하여 생기는 무루의 지혜이다. 이 경지는 진여를 반연해 경계로 삼기 때문에 모든 대상에 미혹함이 없다.[43] 8식의 모든 번뇌와 망상이 소멸되어 진여법계와 우주와 하나가 되어 크고 원만한 거울이 되어 대원경지라고 하고 있다. 위에서 현행이란 현행의 공

---

42) 『成唯識論』(T31, 56a), "云何四智相應心品？一大圓鏡智相應心品, 謂此心品離諸分別, 所緣行相微細難知, 不忘不愚一切境相, 性相清淨離諸雜染, 純淨圓德現種依持, 能現能生身土智影, 無間無斷窮未來際, 如大圓鏡現眾色像."

43) 『成唯識論』(T31, 56c).

덕을, 종자란 종자의 공덕을 말하며 신체와 국토란 자수용의 신체와 국토를 말한다. 그리고 지혜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의 지혜를 이름한다. 미래세가 다하도록 중단이 없다는 것은 시간적 측면을, 끊어짐이 없다는 것은 공간적 측면을 뜻한다. 『성유식론』에서 대원경지는 금강유정에서 훈습을 받지 않고 무루가 증성함이 없을 때 성불한다고 했으며 오직 부처님의 지위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44] 여기서 금강유정이란 제10지 보살이 최후 남은 구생소지장(俱生所知障)과 번뇌장 종자를 한꺼번에 끊고 불지(佛地)에 들어가는 선정을 말한다.

2. 『기신론소』의 구경각

『기신론』에 보살지가 다한 사람은 일념이 상응되어 초상(初相)을 깨달아 미세념을 멀리 여의여 심성을 보아 마음이 상주하니 구경각이라 부른다고 하였다.[45] 원효는 『기신론소』에서 구경각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밝히고 있다.

> 이제 이 지위에 이르면, 무명이 영구히 없어지고 일심이라는 근원자리로 돌아가서, 다시는 동념(動念)을 일으키는 경우가 없으므로 '심성(心性)을 보게 되어 마음이 상주(常住)한다'라고 말했다. 이 경지에서 더 이상 나아갈 경지가 없으므로 '구경각(究竟覺)'이라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앞의 지위에서는) 아직 심원(心源)에 도달하지 못하여 몽념(夢念)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의 요동을 없애버리고 피안(彼岸)에 이르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 경지에서는 이미 심성을 보아서 몽상이 다 없어지고, 자기 마음이 본

44) 『成唯識論』(T31, 56b), "此品解脫道時初成佛故乃得初起, 異熟識種金剛喩定現在前時猶未頓捨, 與無間道不相違故。非障有漏劣無漏法,但與佛果定相違故。金剛喩定無所熏識, 無漏不增應成佛故."

45) 『大乘起信論』(T32, 576b), "如菩薩地盡, 滿足方便一念相應, 覺心初起心無初相, 以遠離微細念故得見心性, 心即常住, 名究竟覺."

> 래 유전(流轉)함이 없는 줄 깨달아서 이제는 고요히 쉴 것도 없고 항상 자신의 일심이 일여(一如)의 자리에 머무르기 때문에 '심성을 보게 되어 마음이 상주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리에 의하여 구경각이라 이름하니, 이는 바로 '깨달음의 수준[覺分齊]'을 밝힌 것이다.[46]

위에서 동념이 없어 심성을 본다는 것은 더 이상 번뇌가 없는 돈오돈수의 상태를 말한다. 동념이 없다는 것은 보살의 10지에서 남아 있는 무명의 업상, 전상, 현상의 미세한 망념을 다 제거하여 일여(一如)의 자리에 머문다고 하였다. 원효는 이러한 완전한 깨달음의 구경각을 얻기 전에 4相 중에서 生相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한다.

> 첫째는 업상(業相)이다. 이는 무명을 말미암아서 불각(不覺)의 망념(妄念)이 작동하는 단계를 의미하는데, 비록 일어남과 사라짐[起滅]이 있기는 하지만 견분(見分)과 상분(相分)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단계로서, 마치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生相이 막 작용하려는 순간이 다다른 것과 같다. 둘째는 전상(轉相)이다. 이는 작동한 망념[動念]에 의하여 능견(能見)으로 바뀐다[轉成]는 의미로서, 마치 아직 드러나지 않은 生相이 막 작용하는 때에 이른 것과 같다. 셋째는 현상(現相)이다. 이는 능견(能見)에 의하여 경상(境相)을 나타냄을 의미하는데, 마치 아직 드러나지 않은 生相이 현재시(現在時)에 이른 것과 같다. 무명이 이 3상(相)과 화합하여 일심(一心)의 체(體)를 움직여 전상을 따라 현상(現相)에 이르는 것이, 마치 소승의 미래장심(未來藏心)이 그 生相을 따라 바뀌면서 현재에 이르는 것과 같다. 이제 대승 중에서 여래장심(如來藏心)이 生相을 따라 현상(現相)에 이르는 것도, 이치상으로는 소승과 같다. 이 셋은 모두 알라야식 자리에서 가지는 차별이다.[47]

---

46) 『起信論疏』(T44, 210b), "今至此位。無明永盡。歸一心源。更無起動。故言得見心性。心即常住。更無所進。名究竟覺。又復未至心源。夢念未盡。欲滅此動。望到彼岸。而今既見心性。夢想都盡。覺知自心本無流轉。今無靜息。常自一心。住一如床故言得見心性。心即常住。如是始覺不異本覺。由是道理名究竟覺。此是正明覺分齊也."

이러한 生相의 3가지 相은 지극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하여 三細라고 한다. 이러한 경지는 10지 수행을 마친 보살이 방편도를 마치고 무간도에 이르러 '마음이 처음 일어나는 상[心初起相]'이 일어나지 않아 앞의 3상을 여의어 구경각에 이르게 된다. 원효는 무념을 본다면 불지를 향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는 인지(因地)의 계위에서 미세념은 여의지 못하였으나 무념의 도리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48] 『기신론소』에서 "중생의 유념이 본래 무념이니, 무념을 얻어서 저것(유념)과 평등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 이는 이미 평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사상(四相)을 두루 알게 되었음을 밝힌 것이다."[49]라고 하였다. 이는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 중생이 갖고 있는 사상(四相) 등의 번뇌를 바른 지혜로 다스림을 의미한다.

혜거는 이러한 단계는 7식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미세한 망념도 없는 무념의 염불삼매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혜거는 무념이란 일념의 상태에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라 한다. 화두수행을 할 때 일념으로 화두가 되어 잡념이 들지 않아 오매일여가 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완전히 무명을 없애고 구경각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염불수행을 할 때 완전히 염불에 집중이 되어 잡념이 없어서 몇 분 동안 염불을 한 것 같았는데 끝나고 보면 벌써 몇 시간이 지난 경우이다[50]. 이는 『육조단경』에서 무념을 설명하면서 없다고 함(無)은 두 모양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고, 생각함(念)이란

47) 『起信論疏』(T44, 209b) "一名業相。謂由無明不覺念動。雖有起滅。見相未分。猶如未來生相將至正用之時。二者轉相。謂依動念轉成能見。如未來生至正用時。三者現相。謂依能見現於境相。如未來生至現在時。無明與此三相和合。動一心體隨轉至現。猶如小乘未來藏心。隨其生相轉至現在。今大乘中如來藏心隨生至現。義亦如是 此三皆是阿梨耶識位所有差別."

48) 『起信論疏』(T44, 210b) "言能觀無念者則為向佛智故者。在因地時。雖未離念。而能觀於無念道理。說此能觀為向佛地."

49) 『起信論疏』(T44, 210c) "眾生有念有無隔別。云何無念能知有念作如是疑。故遣之云。眾生有念本來無念。得無念與彼平等。故言以無念等故。是明既得平等無念。故能遍知諸念四相."

50) 김창언, 「유식의 四智와 『기신론소』의 始覺四位 비교에 대해」, 서울, 2023.2.15.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의 성품으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으나, 일만 경계로부터 항상 자유롭다고 하였다[51]. 임병정은 두 모양인 능소(能所), 생멸(生滅), 유무(有無), 진속(眞俗) 등의 일체의 이분법적인 견해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하였다.[52] 무념을 일상생활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작용이 한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굳게 생각하면서 안팎으로 일어나는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무념의 실천인 것이다.

보광은 '南山念佛門禪宗'에서 제8식의 염불삼매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8식에서는 오로지 염불만을 통해 부처님의 존상을 있는 그대로 하는 염불을 바로 존불법(存佛法)이라고 밝히고 있다[53]. 이러한 염불과 관련하여 원효가 『무량수경종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한다.

> 비유를 들면 세계가 한량없이 넓어서 허공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경계도 한량이 없지만 모두 다 한마음 안에 들어온다. 부처님의 지혜는 현상을 떠나서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와 지혜와 한마음이 혼연히 동체가 되어 둘이 아니다. 시각(始覺)이 바로 본각(本覺)과 같으므로, 한 경계도 지혜의 밖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 이러한 도리로 말미암아 경계를 멸진하지 않음이 없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다. 그래서 무한한 지혜로써 끝없는 경계를 비춘다.[54]

원효가 말하는 대원경지는 일체의 경계를 한마음(一心)의 작용으로 보

51) 『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惠能大師於韶州大梵寺施法壇經』(T48, 338c), "無者無何事？念者念何物？無者, 離二相諸塵勞 念者, 念真如本性。真如是念之體, 念是真如之用。自性起念, 雖即見聞覺知, 不染萬境, 而常自在."

52) 임병정(명조)(2020), 435.

53) 한보광, 최법혜(2002), 110.

54) 『兩卷無量壽經宗要』(T37, 131b), "譬如世界無邊, 不出虛空之外。如是萬境無限, 咸入一心之內。佛智離相, 歸於心原, 智與一心, 渾同無二。以始覺者, 即同本覺, 故無一境出此智外。由是道理, 無境不盡而非有限, 以無限智照無邊境故."

기에 어떠한 경계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같음이 없고 견줄 수 없는 최상의 뛰어난 지혜[無等無倫最上勝智]라고 한다. 이러한 지혜를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바로 대원경지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다.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에서 극락왕생을 하는데 있어서 '무등무륜최상승지'에 대해 우러러 믿을 뿐 비량(比量)할 수 없다고 하였다.[55]

이러한 원효의 사상은 『기신론』에 부처님에게 있어 모든 인식의 대상은 한마음이며 이는 망견·망상을 벗어난 경지라고 하며 모든 생명의 요구에 따라 응해주므로 일체종지라고 하였다.[56]

이상과 같이 유식의 4智와 『기신론소』 4位를 비교 고찰하여 보았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기신론소』 4位(四位)		유식 4智(四智)		비고
불각	① 십신위의 범부 ② 먼저의 생각에 악이 일어난 것을 앎 ③ 뒤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쳐 일어나지 않게 함 ④ 각이라고 하지만 불각 ⑤ 7지 악업을 끊음 ⑥ 전5식을 다스림	성소작지	Ⓐ 후득지에 이끌려 처음 일어남 Ⓑ 유정의 마음작용의 차별을 결택 Ⓒ 삼세 등 여러 대상을 받아들임 Ⓓ 전5식을 전환하여 얻는 무루지혜	①-Ⓐ ⑥-Ⓓ
상사각	① 2승의 관지와 초발의 보살 ② 생각의 이상(異相)을 깨달음 ③ 6가지 이상이 없어짐 ④ 추분별상을 버림(상사각) ⑤ 生起識(제6식)에 있는 여섯 가지 번뇌 소멸	묘관찰지	Ⓐ 2승의 견도위, 승해행지(10주, 십행, 십회향)의 끝에 일어남 Ⓑ 모든 의심의 그물을 부숨 Ⓒ 유루의 제6식을 전환하여 얻는 무루지혜	①-Ⓐ ⑤-Ⓒ
수분각	① 초지이상 십지보살 ② 아공과 법공을 통달함 ③ 4가지 주상(住相)이 없어짐	평등성지	Ⓐ 보살의 초지에서 10지보살 Ⓑ 일체를 평등하게 봄 Ⓒ 아공·법공 닦아 분별집착을	①-Ⓐ ②-Ⓒ ⑤-Ⓓ

55) 『兩卷無量壽經宗要』(T37, 131b), "欲明如是大圓鏡智, 超過三智而無等類, 二諦之外獨在無二, 兩關二表迢然無關。只應仰信, 不可比量, 故名無等無倫最上勝智."

56) 『大乘起信論』(T32, 581b).

	④ 무분별각을 얻음(수분각) ⑤ 7식을 인식대상으로 한 아(我)와 아소(我所)에 대한 견해 소멸		끊음 Ⓓ 말라식에서 자아의 집착을 소멸하여 일체를 평등하게 봄	
구경각	① 무구지보살, 금강유정 ② 마음에 동념이 없어지고 일심만이 있어 초상이 없음 ③ 마음에 초상이 없음 ④ 미세념을 여의고 심성을 보아 마음이 상주하여 구경각 이룸 ⑤ 업상·전상·현상 알라야식 자리에서 가지는 차별을 소멸	대원경지	Ⓐ 보살의 금강유정 Ⓑ 진여(일심)을 반연, 경계로 하여 모든 대상에 미혹함이 없음 Ⓒ 진여법계와 우주가 하나가 되어 크고 원만한 거울 Ⓓ 유루의 야뢰야식을 전환하여 무루지혜 생김	①-Ⓐ ③-Ⓑ ⑤-Ⓓ

위 도표는 『기신론소』에 4位를 네 가지 뜻(깨닫는 사람, 깨달음의 대상, 깨달음의 이익, 깨달음의 범위)으로 정리하였고 유식의 4智 또한 이에 준하여 정리하였다. 이 두 계위를 비교하여 보면 깨닫는 사람 즉 수행계위에서 볼 때 유식에서는 성소작지는 견도의 후득지에서 일어나며, 묘관찰지는 10주, 십행, 십회향에서 이루어지며, 평등성지는 초지와 십지보살에서 나타나고, 평등성지는 구경위 즉 佛果의 初念에서 일시에 증득되었음을 보인다. 이에 반해 『기신론소』에서는 불각에서는 십신위, 상사각에서는 초발의보살, 수분각에서는 초지와 십지보살, 구경각에서는 금강유정 등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성소작지에서는 견도위에서 불각에서는 십신위에서 일어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성인의 수도를 위한 단계에 있다는 것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나머지 수행계위는 일치하고 있다.

識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유식의 4智와 『기신론소』의 4相이나 4位와 비교하면 일치하고 있다. 기타 깨달음의 대상과 깨달음의 이익 등에서는 내용상으로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효의 『기신론소』의 4相과 4位에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기신론』에서 시각의 차별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는데 원효는 『기신론소』에서 시각의 각 계위에서 끊어야 할 번뇌들을 4相과 4位를 설명하

면서 어떻게 소멸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각 계위를 설명하면서 유식의 4智와 배대시켜 화엄과 정토사상을 연계하여 자신의 철학을 접목해 설명하였다. 따라서 원효는 각 계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므로 수행자들이 수행에 좋은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원돈지관의 사상과 수행법을 갖추고 있다. 원효는 사상(四相)의 관계를 성실종(成實宗)에서 사상이 전후의 차별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있음을 인용하였다. 또한 대승비밀사상(大乘秘密四相)에서 깨닫지 못한 사상의 전후에는 깊고 얕음의 번뇌가 있으나 깨달은 사상에는 동시에 있다고 하였다.[57] 그 이유는 불각(不覺)의 경우, 심성을 어겨 적정을 여의고 이에 따라 동념(動念)의 사상을 일으켜서, 사상이 무념과 화합하여 심체로 하여금 생주이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58] 『도서』에 "마음에 어떤 상념이 생겨난다면, 그것을 알아차려라.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상념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깨달음의 수행에서 절묘한 핵심점은 오직 여기에 있다."[59]고 한다. 이 의미는 차제와 관계없이 오로지 알아차림에 중점을 두었다. 그것이 생주이멸의 어떠한 번뇌와 관계없이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상념, 즉 번뇌는 없게 된다는 것이다. 내 한마음에 일체제불과 보살

57) 첫째는 점차(漸次), 둘째는 부정(不定), 셋째는 원돈(圓頓)이다. 이들은 모두 대승으로서 함께 실상을 인연하고, 똑같이 지관이라고 부른다. 점차지관은 처음에는 얕지만 나중에는 깊어서, 그것은 마치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다. 부정지관은 앞뒤가 서로 바뀌고, 마치 금강석을 햇빛 속에 놓은 것과 같다. 원돈지관은 처음과 나중이 둘이 아니며, 신통력 있는 이가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다.(『摩訶止觀』(T46, 1c) "天台傳南岳三種止觀。一漸次。二不定。三圓頓。皆是大乘。俱緣實相同名止觀。漸則初淺後深如彼梯隥。不定前後更互。如金剛寶置之日中。圓頓初後不二如通者騰空."

58) 『起信論疏』(T44, 209a), "是依成實前後四相。而言俱時而有者。以本覺望四相。則無四相前後差別。故言俱時而有。皆無自立。或有說者。此是大乘祕密四相。覺四相時。前後淺深。所覺四相。俱時而有。是義云何。夫心性本來離生滅相。而有無明迷自心性。由違心性離於寂靜。故能生起動念四相。四相無明和合力故。能令心體生住異滅."

59) 『禪源諸詮集都序』(T48, 403a), "念起即覺。覺之即無修行妙門唯在此也."

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으며 우주의 근본도 한마음에 직결되어 있다. 선행하는 것도 악행하는 것도 다 한마음의 작용임을 알아차림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이 원돈지관의 실천이라고 본다. 일반적인 수행법이 범부와 성인 등의 차별을 두어 설명하는데 굳이 차별을 안 두는 이유는 수행자의 근기에 맞는 경계와 번뇌를 스스로 넘어설 수 있으므로 수행계위를 나누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점차지관의 사상과 수행법을 갖추고 있다. 유식이나『기신론』등에서 차제를 두어 설명하는 이유는 심식의 작용을 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심식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정화한다는 취지이다. 다시 말해 滅相에서는 7지악업을, 異相에서는 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견(見)을, 住相에서는 아치(我癡)·아견(我見)·아애(我愛)·아만(我慢)을, 生相에서는 업상·전상·현상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 선문의 수행법에 대해 의심이 가거나 신심이 안 나는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점차수행이나 계위수행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고 수행한다면 자신의 번뇌를 제거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Ⅵ.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이 원효가『기신론소』4位를 설명하면서 유식의 4智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그리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4位와 4智의 관련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식의 성소작지는 후득지에 처음 일어나며 유정의 마음작용의 차별을 결택하고 삼세 등 여러 대상을 받아드리고 전5식을 전환하여 얻는 무루지혜이다.『기신론소』의 불각은 십신위의 범부에 해당하며 먼저의 생각에 악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

려 뒤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치게 한다. 이 계위는 각이라고 하지만 불각에 해당하며 전5식을 다스린다.

유식의 묘관찰지는 2승의 견도위와 승해행지에 해당되며 모든 의심의 그물을 부수어 유루의 제6식을 전환하여 얻는 무루지혜이다. 『기신론소』의 상사각은 2승의 관지와 초발의보살에 해당되며 생각의 이상(異相)을 깨달아 6가지 이상이 없어져 추분별상을 버려 상사각이라 이름한다. 이는 생기식 제6식에 해당된다.

유식의 평등성지는 보살의 초지에서 10지보살에 해당되며 아공·법공을 닦아 제7식에서 분별집착을 끊어 일체를 평등하게 본다. 『기신론소』의 수분각은 초지 이상 십지보살에 해당되며 7식을 인식대상으로 한 아(我)와 아소(我所)에 대한 견해를 소멸하고 아공과 법공을 통달한다. 이 계위에서 주상(住相)이 없어져 무분별각을 얻는 상사각을 이룬다.

유식의 대원경지는 유루의 제8식을 전환하여 얻는 무루지혜로 보살의 금강유정에 해당되며 진여를 반연, 경계하여 모든 대상에 미혹함이 없이 우주와 하나가 되어 원만한 거울과 같다. 『기신론소』의 구경각은 알라야식자리에서 일어나는 3상을 소멸하여 미세념을 여의고 심성을 보아 마음이 상주하여 구경각 이룬다. 마음에 동념이 없어지고 일심만이 있어 초상이 없으며 이는 무구지보살, 금강유정이 이에 해당한다.

원효는 『기신론소』에서 『기신론』에 언급된 시각의 계위에 대해 4相과 4位를 관련시켜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다. 또한 『기신론』사상이 반야사상(般若思想)과 유식사상(唯識思想), 그리고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더해 원효는 화엄사상과 정토사상 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수행자들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효는 다양한 경론을 섭수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수행사상을 정립하면서 모두가 일심이라고 하는 설명과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일심을 보게 하도록 이끌어 주는 선사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선과 명상이 다양화 되어가는 현상에서 원효의 사상과 수행법을 잘 정리하여 국내외에 알려 실천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참고문헌>

『大方廣佛華嚴經』, T10.

『成唯識論』, T31.

『唯識三十論頌』, T31.

『大乘起信論』, T32.

『兩卷無量壽經宗要』, T37.

『起信論疏』, T44.

『南宗頓教最上大乘摩訶般若波羅蜜經六祖惠能大師於韶州大梵寺施法壇經』, T48.

『禪源諸詮集都序』, T48.

『義相法師法性偈』, B32.

김도공(2002),「원효의 지관수행론:『대승기신론소』를 중심으로」,『종교교육학연구』14, 23-36.

김성철(2015),「원효의 제7말나식관-원효 초기저술에 나타난 제7말나식의 인식대상 논증을 중심으로」,『불교학연구』제42호, 1~28.

오형근(1980),「원효사상에 대한 유식학적 연구」,『불교학보』17, 77-111.

임병정(명조)(2020),「『육조단경』에 나타난 돈오(頓悟)와 무념(無念)의 상관성 고찰」,『불교문예연구』15, 429-459.

정은해(2010),「전식득지 개념과 선구적 결의성에 대한 비교철학적 연구」,『불교학연구』27, 423-483.

한보광, 최법혜(2002),「念佛禪의 修行方法」,『정토학연구』5, 99-130.

〈인터뷰〉

김창언,「유식의 四智와『기신론소』의 始覺四位 비교에 대해」, 서울, 2023. 02. 15.

Abstract

The Thought and Practice of *Wonhyo*:

Focusing on four stages(4位) of the activation of enlightenment in *Gisillon so*

Ven. Cheong-Gang(Chang Eon Kim)

This study specifically explains the hierarchy of initial enlightenment mentioned in *Awakening of Mahāyāna Faith* by mentioning the four marks (4相) and four stages (4位) in *Gisillon* so by *Wonhyo*, and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the process from nonenlightenment to ultimate enlightenment with the four kinds of cognition (4智) of consciousness-only, and *Wonhyo*'s asceticism thought shown in *Gisillon so* was organized.

In *Gisillon so*, 4位 was arranged into 4 meanings, and the four kinds of cognition were also arranged accordingly. Comparing these two levels,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mostly the same for the enlightened person, that is, the level of ascetic practice and the governing of consciousnes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the object of enlightenment and the benefit of enlightenmen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re mixed.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 marks(4相) and four stages (4位) of *Gisillon so*, first, Wonhyo presents his own unique method of practice by adding *Huayan* and *Pure Land* thought to the ideas of *Awakening of Mahāyāna Faith*. Second, it can be seen that he has both perfect and sudden cessation and contemplation (圓頓止觀) and gradual stilling and insight

(漸次止觀) practice. Although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deep and shallow four marks, it is said that there are four marks in enlightenment at the same time, which can be said to be the practice of gradual stilling and insight based on the idea of Buddha-nature that is already enlightened. On the other hand, there is gradual stilling and insight to clarify the state of one's mind and consciousness closely in the state of seven and eight consciousness beyond the basic six consciousness.

Keywords ● *Gisillon so*, *Wonhyo*, four marks (4相), four stages (4位), four kinds of cognition (4智)

▌논문투고일 : 2023. 6. 8 ▌심사완료일 : 2023. 6. 18 ▌게재확정일 : 2023. 6. 20